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MSO의 세계 군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MSO 사역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1 8월 동아시아 회장단 Vision 기도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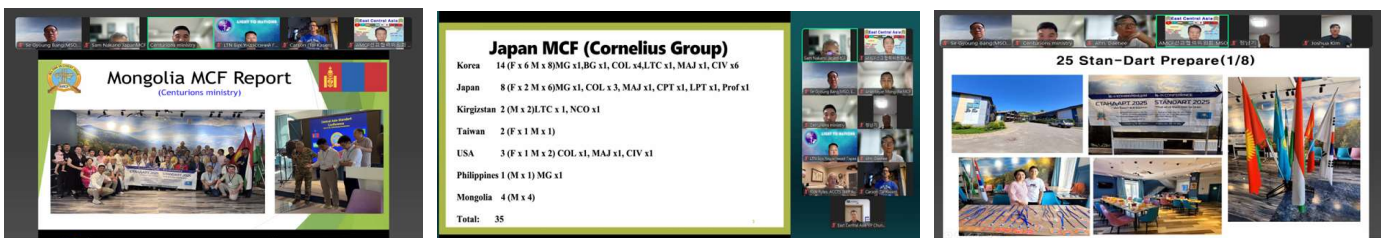
2025년 8월 2일 저녁 동아시아 회장단 Vision 기도회가 몽골 MCF 회장의 주관으로 온라인을 통해 열렸다. 이번 기도회에는 일본(1명), 몽골(3명), 한국(5명: ECA VP, KMCF 사무장, MSO 동중아 팀장·부팀장, 김상철 목사), 미국 ACCTS(2명: 아시아 협조관, 중국 협력관) 등 총 11명이 참석해 각국의 현안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이어갔다.

기도회는 동중아시아지역(ECA) 부회장의 개회기도로 시작하여, 몽골 Odontugs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국가별 현안 나눔과 중보기도가 이어졌으며, 일본은 2025 동중아시아 인터랙션 추진 경과를 보고(참석자 35명: 한국 14, 일본 8, 키르기스스탄 2, 대만 2, 미국 3, 필리핀 1, 몽골 4), 한국은 2026 동중아시아 기독교인대회 준비 보고를 발표했다.

또한 동중아시아지역 부회장 정봉대 목사가 동중아시아 사역과 비전 보고를 통해 2025 스탠대회 성과를 나누었으며, 그의 축도로 기도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2025 동중아시아 인터랙션 세부 강사 편성 보완, ▲몽골 군부대 교회 설립을 위한 기도 요청, ▲KMCF 회장단 구성 후 “2026 동중아시아 기독교인 서울대회” 계획 작성 및 각국 전파, ▲각국의 서울대회 참여 관심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각국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준비하고 있음에 큰 의미가 있다”고 고백하며, 다음 동아시아 9개국 Vision Prayer는 10월 4일에 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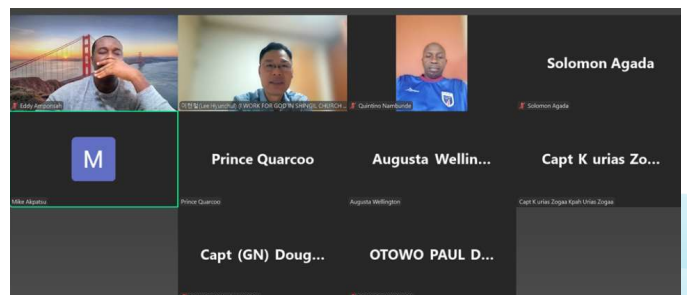


2 서아프리카 MCF 합심 기도회 비대면 개최

2025년 8월 4일(월) 서아프리카 MCF 합심 기도회가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도회에는 서아프리카지역 부회장 Mike Akpatsu를 비롯해 가나(3명), 기니비사우(1명), 라이베리아(1명), 나이지리아(2명), 시에라리온(1명), MMI(1명), 그리고 서아프리카 팀장 이현철 장로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기도회는 개회기도로 시작해 각국 대표들이 기도제목을 나누며 합심 기도를 이어갔다.



주요 기도제목으로는 아프리카를 위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분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부패가 드러나 뿌리 뽑히도록, 극단주의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AMCF 아프리카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등이 제시되었다. 기도회는 함께 중보한 후, 폐회기도와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를 위해서는 영적 기도의 연합이 절실하다”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연대를 다졌다.

3 MSO 사무실 내방

가. 미국 아리조나대학 Nancy Buck 박사 가족 MSO 방문

8월 14일 오전 11시에 미국 아리조나대학교의 Nancy Buck 박사 가족이 MSO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ECA 부회장, 윤문수 안수집사, 운영실장이 함께했으며, MSO 영문 브리핑과 더불어 국군중앙교회 투어가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한·미 간 학문적 교류와 신앙 공동체로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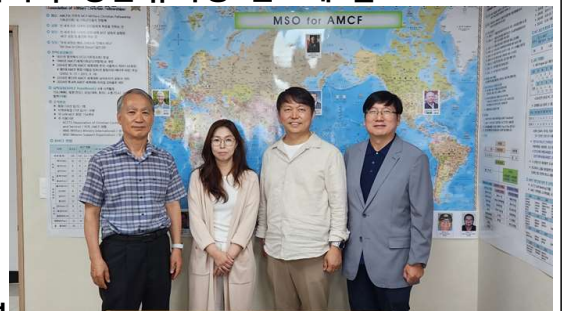
MSO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신앙과 교육, 국제적 교류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 김중범 선교사 부부, MSO 방문...영국 군선교 협력 논의

영국에서 사역 중인 김중범 선교사 부부가 8월 6일 오전 MSO 사무실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선교사는 영국 WEM선교회 리더이자 청년·유학생 선교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김 선교사 부부는 영국 내 청년·유학생 및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선교 현황을 소개하며, 현지 선교 사역의 어려움과 필요를 공유했다. 또한 2023년 MSO를 방문했던 김한식 장로와의 교류 경험을 언급하며, 한인 선교 네트워크의 확장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MSO 사역 소개 ▲영국 내 군선교 협력 방안 ▲MMI와의 연대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영국 내 군선교와 청년사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AMCF 사역활동

가. 신길교회 네팔 단기선교팀, MCF 회장단과 협력사역 진행

2025년 8월 22일 신길교회 네팔 단기선교팀이 카트만두 한인식당에서 네팔 MCF 회장단과 함께 선교사역 협력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신길교회 이현철 장로를 비롯한 총 34명의 선교팀과 네팔 MCF 인드라 회장을 포함한 6명의 MCF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신길교회 네팔 선교현황과 네팔 MCF 현황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네팔 MCF는 힌두교도의 핍박 속에서도 약 250여 명의 기독 군인들을 대상으로 신앙훈련을 진행 중이며, 네팔 현역 군인은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에서 신길교회는 AMCF 핸드북 전달, AMCF 배지 수여, 저녁식사 제공, 격려금과 화장품 선물 전달 등으로 MCF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길교회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역을 통해 네팔 현지 선교와 기독 군인 신앙훈련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나. 우간다 신임무관과 Judge Wandera 대위와 친교만남

MSO 해최파견 무관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신임무관(김** 중령)과 2025 MEO-P에 참가한 쥘드 완드라 대위가 2회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이때 우간다 국가정보본부 소속 완드라 대위로부터 개인간증책을 선물 받기도 했다. 8월 중순에는 김 중령은 완드라 대위를 비롯해 이집트 장군과 주한 한국대사관 서기관을 초청하여 숙소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우간다 MCF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5 MSO 협력선교사 사역활동

가. 과테말라 군선교 세미나, 현지 목회자와 군목 대상 성공적 개최

뉴저지 주예수 사랑교회 원로목사이자 MSO 뉴욕지역 협력관인 Joshua Kang(강유남) 목사(예 해병 중령)가 주도한 과테말라 군선교 세미나가 2025년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과테말라 Casa Villas Magen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AMCF MSO in New York, 국제천국복음선교회, 뉴저지 총신대학교, 주 예수 사랑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현지 목회자 40명, 군목·경목 70명, 현지 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의 주제는 조직신학 전도방법으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도 전략과 선교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세미나가 매우 유익했다”, “현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전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강유남 목사는 “현지 목회자와 군목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목표였다”고 밝혔다. 이번 과테말라 군선교 세미나는 현지 선교와 군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태국 오영철 선교사, 카렌족 사역 소식 전해

2025년 8월 17일 태국에서 사역 중인 오영철 선교사가 미얀마 내전으로 고통받는 카렌족 실항민들을 위한 최근 소식을 전했다. 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카렌족을 위해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을 소개했다. 현지 목회자인 무무에 목사는 돌봄 사역을 통해 약 400명의 피난민을 섬기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세계선교회(GMS)를 통해 지난 7월에는 320만 원, 8월에는 435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곧 3차 지원도 예정돼 있다. 한편 카렌족 목회자의 아내인 그래리아 사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긴급한 기도 요청도 함께 전해졌다. 오 선교사는 기도제목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를 소망하며 △피난민들을 섬기는 무무에 목회자와 동역자들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렌족 실항민 지원



그래리아 사모 병문안

6

KVMCF/KMCF 연합조찬 예배

2025년 8월 6일(수) 오전 5시 30분, 국군중앙교회 대예배실에서 국방부·합참·재경지역 MCF 회원들과 KVMCF, MSO,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연합 조찬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부천하나교회 담임 하상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무기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 목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조차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군인들과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격려했다.

예배 후에는 유관기관과 회원들이 함께하는 친교와 차담의 시간이 이어져 교제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7

기도제목

• 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AMCF)를 위해

- ① 세계 196개 나라 중 MCF가 미설립된 42개국에 MCF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 ② AMCF 회장, 각 지역 부회장의 모임과 소통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 ③ ACCTS(미국), MMI(영국), MSO(한국) 주지원기관의 협력사역으로 AMCF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 ④ 전 세계 MCF와 리더를 통해 기독교인에게 성경공부, 기도모임, 친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 ⑤ 동중아시아 인터랙션(10.17~19 / 일본 동경)을 준비하는 일본 MCF 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준비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지역 전쟁이 조속히 종결되고 평화가 오도록

• 세계기독교군인선교협력위원회(MSO)를 위해

- ① 후반기 사역을 잘 준비하여 감당하도록
- ② 회원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 ③ 교회, 유관기관,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AMCF선교협력위원회)

❖기업은행: 057-054670-01-037 ❖우리은행: 1005-100-928357 ❖국민은행: 822401-04-101283 ❖우체국: 011494-01-001584

